

##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분야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사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분야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예심) 2025년 4월 15일(화) ~ 5월 14일(수) / 온라인 심사
  - (본심) 2025년 5월 23일(금) 14:00 ~ 17: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박해성, 박혜선, 안경모, 이성곤, 이시원, 최윤우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분야 사업은 동시대성·다양성을 갖춘 훌륭한 작품과 창작자들을 소개해, 극작가가 대본 구상과 집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동기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년을 웃도는 많은 신청작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사는 연극의 토대를 만들어내는 희곡 작가들이 얼마나 깊은 시대적 사유를, 다양하고 혁신적인 미학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청작의 깊이와 다양함을 담아 선정된 총 8편의 선정작 뿐만 아니라 아쉽게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신청작 역시 분명히 연극계의 건강하고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본공모에 응해주신 모든 극작가들께 감사와 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극분야 총 231건의 신청작 중 필수서류 미제출, 기공개 및 기지원 이력, 필수서류 요건 미충족 등 안타깝게 행정결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수 작품이 연극분야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비공개되는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예심을 진행하였고, 예심을 거쳐 올라온 20편의 신청작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논의를, 역시 지원자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극작, 연출, 평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작품의 주제와 소재, 구성 등 미학적 요소의 창의성과 우수성, 타 작품과의 차별화된 요소, 동시대성의 반영, 관객과의 정서적 공감 가능성의 세부사항으로 이루어진 '작품성(80%)', 공연용 대본으로서 상당한 수정 없이 해당 희곡이 가진 요소만으로 완성도 있는 공연제작이 가능한 '무대화 가능성(20%)'을 심사의 기준으로 논의 대상 작품들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동시대를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화두 안에 미래시대를 고민하는 작가의 고유한 시각이 다양하게 구현되었고, 젊고 재기발랄한 감각과 독심있는 경륜과 호흡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어느 한 방향성이나 경향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고르게 분포되어 현재 연극계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데올로기로 설명되지 않는 지금의 가족과 역사 등 개인을 연결하거나 둘러싼 관계성을 면밀하고 차분하게 응시하는 고유한 시선들이 인상적이었고, 고통스러운 현상들을 깊고 꾸준히 응시했을 때에만 이를 수 있는 긍정성과 상상력은 더욱 소중한 공감을 이루었

습니다. 특히 AI, 환경, 노동문제 등 기술과 자본의 고도화에 따른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인간생존과 존엄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과 날카로운 비판이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를 넘어서 연극적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관객과의 공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수 있는 반가운 현상으로 읽혔습니다. 다만 OTT와 웹툰, 웹소설 등 여러 매체에서 서사와 소재가 이슈화를 위한 "콘텐츠"로 소비되는 오늘날 대중문화 예술의 현상이 다수의 희곡에서 읽히는 바, 이 점에서는 여타 매체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무대와 연극이라는 고유한 경험현상이 충분히 면밀하게 분석되고 반영된, 오늘의 새로운 무대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밀도있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의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본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극작가들의 사색과 집필의 시간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연결되고 모여서 지금의 연극계가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예술적 성취와 경향이 소수에 독식되지 않고 다양한 연극언어의 공존이 서로에게 창작의 자극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대본공모 사업이 공연계의 다양한 현재를 연결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공모에 응해주신 모든 극작가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어질 소중한 창작을 무대 안팎에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연극 분야 심사위원 일동